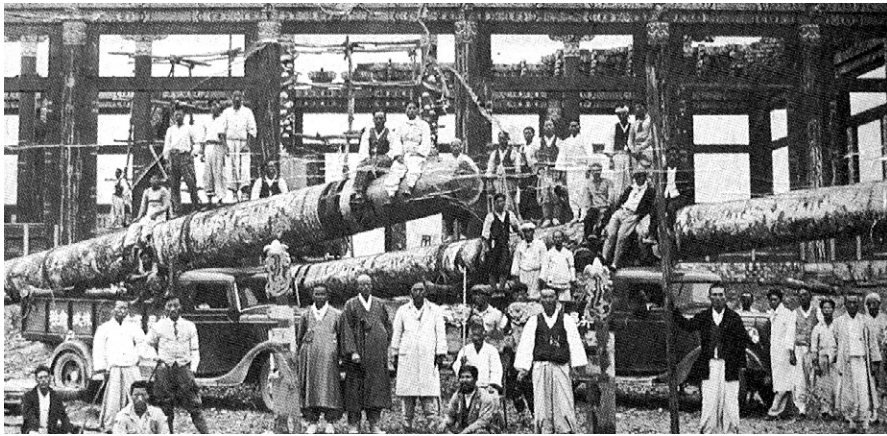


근대불교 역사 조계사서 본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조계사 창건역사와 유물'전을 5월 10~8월 11일까지 연다. 사진은 조계사 대웅전 건립 사진

'조계사 창건역사와 유물' 전

한국불교의 총본산 조계사의 창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원학 스님)은 '조계사 창건역사와 유물'전을 5월 10~8월 11일까지 연다. 이번 기획전에는 1938년 조계사 대웅전이 건립될 당시 불교의 상황과 생활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대 자료 총 240점이 전시된다.

모금 현황 상량문 유물로 추측 종욱·일섭 스님 등 조계사 건립

불교중앙박물관은 "조계사 대웅전 건립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자주적인 한국불교를 세우고자 했던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조계사 창건의 역사와 의미를 새겨보고 1930년대 생활상과 조계사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조계사 대웅전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건립되었다. 또한 당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건물이었던 만큼 최고의 인물과 장인들이 이 건물을 세우는데 참여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지암 종욱 스님과 화사 금융 일섭 스님이었고 도편수 최원식도 여기에 포함된다. 종욱 스님은 대웅전 건

립을 총괄, 보천교 십일전을 1만 2천원에 매입 총본산 대웅전 건립을 진행했다. 또한 도편수 최원식은 1920년대 창덕궁 대조전 재건 공사를 총지휘한 도편수로 조계사 대웅전 건립을 위해 경복궁과 덕수궁을 조사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내외 벽의 단청, 벽화 영산회상도 등 대웅전을 장엄하는 일은 당시 불교계 최고의 화사였던 일섭 스님이 담당했다.

또한 대웅전 상량문 유물로는 조선불교 총본산대웅전상량문, 총본산건설소역원, 총본산건축비각사부담액, 관서질 등이 발견되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건축 비용을 적은 각사부담액 문서에서는 당시 31본산에서 이건축비를 부담한 내역이 적혀 있는데 총 100402원 47전을 모아준다는 현재 가치로 100억원에 해당한다. 대웅전을 건설한 실무 담당자들의 명단 문서에는 대웅전을 건설한 실무담당자들의 명단에는 일본인들이 있기는 했으나 사실상 대웅전 건립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졌다"고 전했다.

전시는 △일제강점기의 불교와 조계사의 창건 △조계사 대웅전을 만든 인물 △조계사 대웅전 발견 상량유물 △현재의 조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계사 대웅전 건축공사 사진 및 관련 자료를 비롯해 용조각 및 상량유물인 비녀 받치 뒤꽂이 귀이개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불출협 제6회 불교도서전...5월 8일부터

월호 스님 법문과 사인회도

불교출판 활성화와 사찰도서관 만들기 운동 전개를 위한 '제6회 불교도서전'이 5월 8일~5월 12일 조계사에서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불출협)가 주관하는 '제 6회 불교도서전'에서는 500여종의 신간 불서를 만날 수 있다.

불출협은 "회원사를 중심으로 신간을 선정 2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하여 도서를 판매"하며 "수익금은 사찰 공간을

활용하고 불교문화를 알리는 '부처님굴 사랑' 사찰도서관 도서지원에 쓰인다"고 전했다. 현재, 사찰도서관은 인천불교회관, 조계사, 신흥사, 병영사, 불암사, 정각사, 거창포교당, 봉림사, 대전보문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부대행사로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의 법문과 사인회, 11일 오후 2시 모아 스님의 사인판매가 조계사 앞마당에서 각각 열린다.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龍生九子—'용의 변화무쌍한 변모'

용의 상징 알아야 한국미술 이해

용의 아홉 자식에 대한 내용은 중국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명(明)의 호승지(胡承之)라는 사람이 쓴 <진주선(眞珠船)>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호승지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眞珠船>도 어떤 책인지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용이 아홉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만으로 족하다. 용이 아홉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호승지는 중앙아시아 사람인 듯한데,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9는 양수 가운데 가장 큰 수로 무한한 아들이라는 의미로 9라는 숫자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용의 본질은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며 만물의 근원이며 최고의 신(神)이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그는 아홉 아들이 동물이름을 각각 붙이고 그 기능을 설명하였는데 맞는 것도 있고 옳바르지 않은 것도 있다.

중국 호승지의 견해가 중요한 단서

그러나 비록 후대의 기록이라 하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놀라운 것은, 호승지가 용의 아들이라고 본 9가지 동물의 모습이 모두 용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더욱 놀란 것은 이들의 생김새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호승지는 그 모두를 용으로 보았던 것이다. 용의 아들은 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 용구자설(龍九子說)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또 믿는 학자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이후 이 생각은 다시 다음과 같이 윤색된다. 즉, 용생구자(龍生九子)란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동물로, 용이 낳았다는 아홉 자식을 가리킨다. 각각 그 모습과 성격이 다르며 그 성격이 맞는 장소에서 각각 활약하나 용은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을 '용생구자불성룡(龍生九子不成龍)'이라고 한다. 형제들이 성격이 다른 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비록 후대의 기록은 그런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글만은 신빙성 있는 부분이 많아서 나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문헌기록이다. 용구자설(龍九子說)은 말 그대로는 틀린 말이며 상징적으로는 옳은 부분이 많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틀린 용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말은 용을 동물로 보기 쉬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호승지가 말한 아홉 아들의 이름과 기능을 정리하여 보자.

1. 비희(鼯鼠): 모양은 거북이를 닮았는데 무거운 것을 지기를 좋아한다. 돌비석 아래에 있는 귀부(龜趺)가 비희이다.

2. 치문(鸱吻): 모양은 짐승을 닮았는데, 먼 데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전각(殿閣)의 지붕 위에 있는 짐승머리로 혹은 치미(鸱尾)라 하며, 화재를 누를 수 있다.
3. 포피(蒲牢): 모양은 용을 닮았는데, 소리 지르기를 좋아한다. 바다에 사는데 고래를 제일 겁을 내어 고래가 습격 시에 크게 울어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종소리를 크게 하고자 할 때는 포피를 종위에 조각하고 고래 모양으로 만든 당(甕)을 친다.
4. 폐안(狻猊): 모양은 호랑이를 닮았는데, 위력이 있어서 옥문(闕門)에 세운다. 갑옷이나 법정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새겨며, 범자들이 경외심을 느끼게 한다.
5. 도철(饕餮): 탐욕이 많아 마시고 먹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도 잡아먹는다. 그래서 술의 뚜껑에 세우며 악수(惡獸)로 불린다. 鐘(鐘)이나 鼎(鼎)에 무늬를 새겨 넣어 탐욕을 경계하게 한다.
6. 공복(蚣蝮):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졌다. 그래서 다리의 아치에서 돌출하게 만든다.

7. 애자(睚眦): 죽이기를 좋아하며 칼의 킁등이나 칼자루에 새긴다. 예를 들면, 관우의 무기인 청룡연월도를 아시는가? 그 무기를 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애자다.
8. 산예(狻猊): 모양이 사자와 닮았고 연기와 불을 좋아하며 향로에 새긴다.
9. 초도(椒圖): 입을 닫아 있는 것을 좋아하며, 남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문을 지키는 신수로 사용된다. 그래서 문고리에 붙인다.

이들 아홉 아들의 동물이름은 대체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한다. 자, 그러면 아홉 아들의 동물이름과 아홉 아들이 실제로 조형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정리해 보자. 이미 정해진 용어와 내가 고친 용어를 함께 써 두기로 한다. 비록 동물이름들을 붙여놓았지만 결국 모두가 용임을 알 수 있다.

1. 비희(鼯鼠)→석비의 귀부(龜趺): 요즘 쓰는 용어. → 용[龍趺]
2. 치문(鸱吻), 치미(鸱尾)→용미(龍尾) 혹은 용: 이미 설명하였음.
3. 포피(蒲牢), 鐘고리 → 용
4. 폐안(狻猊), 옥문(闕門)에 장식 → 용
5. 도철(饕餮), 청동기의 악수(惡獸) 정면 얼굴 → 용
6. 공복(蚣蝮), 다리에 장식 → 용
7. 애자(睚眦), 칼 도끼 등 무기를 생김새 함 → 용
8. 산예(狻猊), 사자모양을 향로 뚜껑에



장식 → 용
9. 초도(椒圖), 문고리장식 → 용

용의 본질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호승지는 이들 아홉의 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설명 내용은 모두 틀렸어도, 우리가 모두 귀면(鬼面)이나 도깨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모두 용의 아들이라고 지적한 것은, 호승지가 그 아홉 귀면을 모두 용이라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그의 공헌은 아홉 아들을 용과는 다른 이름을 붙였어도 그 모든 것을 용의 얼굴의 측면이든 정면이든 용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이들 모두를 잘못 부르고 있어서 주변에 모두 용인 것을 귀면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아홉 아들 하나하나가 용임을 증명하여 나갈 것이다. 이 중요한 문헌 기록의 진위문제는 용의 본질을 알아야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알 수 있는데, 용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므로 호승지의 기록을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호승지의 기록을 지나치고 있으나, 그 기록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어서 무엇인지 몰랐던 정면 얼굴들이 용의 정면 얼굴임을 알 수 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용의 정면얼굴을 용의 얼굴이라 고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 그 까닭은 알

았다. 정면 얼굴만 있지 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이나 박물관에 가면 사람들이 수면(獸面)이나 괴수(怪獸)나 귀면(鬼面)이라 부르는 조형의 대부분은 용의 정면 얼굴이라고 인식하면 좋다. 중요한 기물(器物)이나 석조(石造)의 중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용을 조각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용은 물이요, 만물의 근원이요, 그러기에 변화무쌍하여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사람의 얼굴로도 나타난다. 사람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은 암시하는 바가 매우 크다. 봉황도 용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삼라만상이 비로자나의 현현(顯現)이듯, 삼라만상이 용의 현현(顯現)이라고 감히 말한다. 것처럼 용의 조형과 상징이 중요하므로, 용을 모르면 한국미술을 더 나아가 동양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 비록 호승지의 이야기가 혼란스러워 보여도, 용의 본질을 알면 그리 어렵지 않게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을 버릴 수 있다. 옳은 것을 취하면 세상사 그렇듯이 얻는 바가 크고도 크다. **강우방 (일화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어떠이날 어르신들과 스님들께 올리는 최고의 효도선물

TDP 인체공명파 온열치료기 神燈

어르신들의 어깨, 목, 허리, 무릎의 만성적인 근육통 완화! (체온요법으로 건강 예방 증진)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참기 어려운 통증, 잠을 자다가도 불쑥 갑자기 끊어지는 듯이 아프게 찾아오는 통증, 온몸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고통, 지하철 버스 손잡이도 잠을 수 없을 만큼 아픈 팔, 어깨 근육 통증, 이제 걱정마십시오. 본 의료기기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체온요법이란?
오장육부를 알맞은 온도로 기능회복을 시키고, 인체 통합시스템인 면역계와 호르몬계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병(환부)부위는 냉(冷)에서 비롯된 병적 부분을 온열요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파 광선조사기의 파장은 공명작용으로 피하심층까지 침투하여 손상된 세포조직이 활성화되어 건강은 물론 심신까지 안정화 시킵니다.

TDP 인체공명파 온열치료기 神燈 응용

- 1) 병의원 보조 치료기 (소염 진통 증상완화 - 혈류량 증가)
- 2) 구급치료기 (복통, 설사, 화상, 신경통 등 각종 통증 완화)
- 3) 신경안정화기능과 교통사고 후유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관절결림의 감소와 연조직 고풍인압 증진 등 효율적 효과를 보여줍니다.

■ 상담 및 구입문의 :
수입총판 휴먼라이프 서울지사 02)739-5008
※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440호에 체험방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건강생활 회원모집

참건강 생활의 등대지기로 여러 불자님들께 정신과 육체적 편안함과 쉽고도 확실한 건강요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연건강요법과 생명파동의 놀라운 위력과 신비함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특전 및 교육과정

■ **회원특전**

- 1) 맞춤형 개인 건강관리
- 2) 현재 건강상태 점검 (파동요법), 척추교정
- 3) 주거환경탐사 (수맥파 유해전자파)
- 4) 자연건강 운동법, 맞춤형 자연식생활법.
- 5) 경제적 수익사업

■ **교육내용**

- 1) 자연건강법 강의 (매일 오후 2-3시)
- 2) 건강운동법 (6대 법칙 실습교육)
- 3) 파동특정 탐지법
- 4) 척추건강요법

■ **파동의학 전문지도교수 : 박철용**
現 하와이호놀룰루 대학 / 자연의학과 교수(초능력) 수맥과대학 (파동학교수) 한국자연건강회(이사) 건강지도사 1급 자격.

상담 및 문의 02)739-5008, 010-2353-2010
서울 종로구 수송동 두산위브 440호

빙의 퇴마사레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스님은 마음의 병은 첫째, 지난 삶이론 과정에서 잠재되어 오고 둘째, 진성으로부터 잠재되어 오고 셋째, 빙의되어 온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빙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최면을 통해 퇴마했던 그 과정을 이젠 책에 생생하게 담았다.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 있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역학·빙의 퇴마 (개인지도, 직접 상담)

★ **상담** : 1. 사주상담, 궁합, 택일, 신생아 이름, 개명, 부부문제
2. 최면심리상담, 우울, 불안, 공포증, 빙의 퇴마, 환경
3. 무속인 상담,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범당정리

★ **개인지도** : 역학(기문둔갑), 성명학, 최면요법과 빙의 퇴마

★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비룡정사 서울 포교당 제행스님
011-772-4606 / 02-588-4606